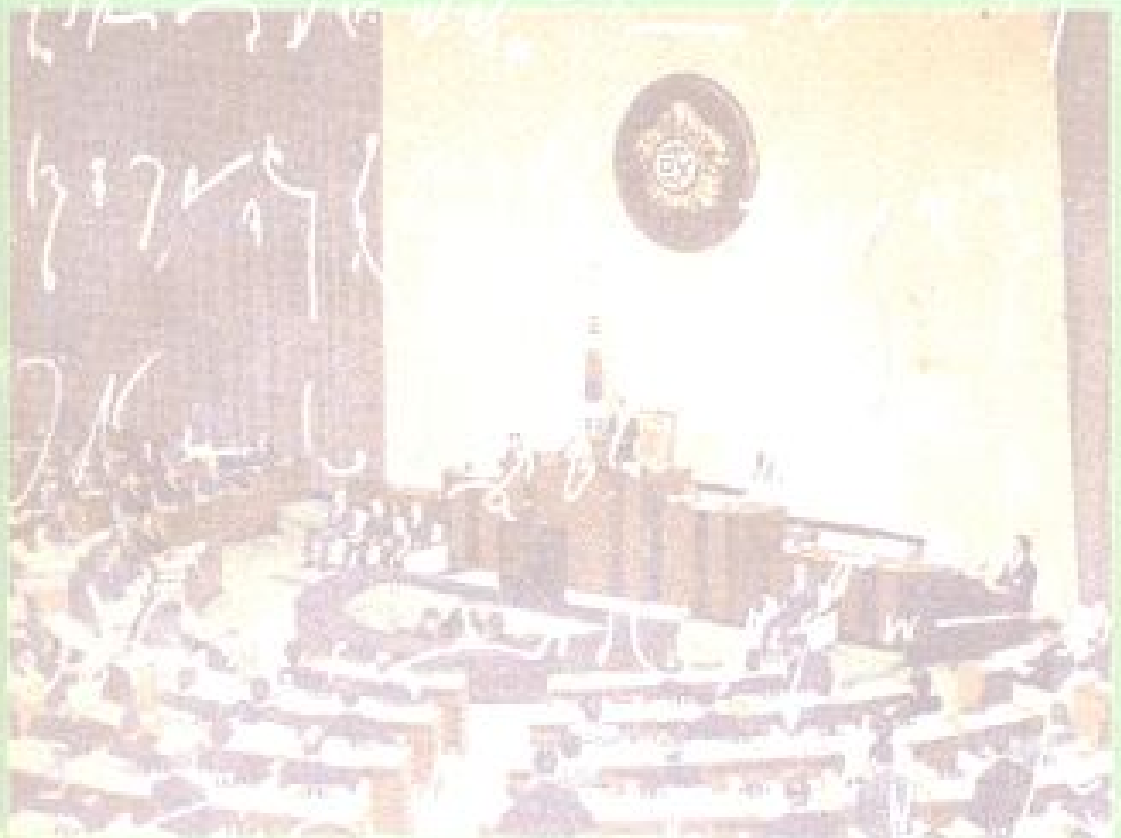
速記界

第 32 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차 례

■권두언 세계화를 향하여 힘찬도약을

■격려사 기록보국의 사명으로

■인터뷰/홍사덕 국회노동환경위원장

회의록은 영구보존되는 중요한 사초 ····· 조영기

■인터스테노

제41회 인터스테노 세계총회 ····· 외국어부

INTEGSTENO와 세계화 ····· 김은숙

■좌담회 '94 국정감사를 다녀와서

■지방의회 탐방 부산시 의회를 찾아서 ····· 서현숙

속기사와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 이갑준

나의속기담 ····· 전해성

CAS속기에 대하여 ····· 안정근

속기와 번문 ····· 임희용

■미니인터뷰 여성의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 김선옥 국회속기사무관

■회원동산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 박광택

■회원동산 좁은길 ····· 신미옥

■자료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 박광택

■회원동산 국회회의록 관계법령

■회원동산 국정감사회의록작성

· 회원동정

· 회무보고

· 편집후기

■권두언

세계화를 향하여 힘찬도약을

회장 강우혁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1994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과 도약의 을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방 5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각오 또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바 있습니다만 세계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그 변화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빠르고 급격해졌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를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만들어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또한 94년을 세계환경의 해로 지정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인류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사회로 가고 있으며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말 역시 세계 속의 나로 바꾸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인간의 생활영역과 환경은 확장될 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3년에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에 가입한 이래 나름대로 세계를 향하여 열심히 활동을 해왔으나 지난 번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에 열리는 제41회 INTERSTENO 총회에는 반드시 참가하여 세계속의 한국 속기계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협회의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세계

속기계의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속기문화의 교류를 통한 세계인들과의 친목도모에도 힘을 기울여 국익과 속기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의회정치의 산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국회속기사를 비롯하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오로지 긍지 하나로 사회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속기인 여러분!

금년에 실시될 4대 지방자치 선거로 인하여 의회민주주의는 더욱 꽃을 피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속기의 필요와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속기인들의 위상과 자세 또한 새로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전문지식의 습득에도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날로 정보화 · 전산화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속기업무에도 이를 도입 ·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속기인 가족 여러분!
속기인의 총집결체로서 1955년에 설립된 대한속기협회는 지난 40년 동안 속기 문화의 보급과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하여 협회의 설립 목적인 기록보국과 공익에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 속기인은 이제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도약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할 줄로 압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은 적응이 아니고 퇴보를 의미하는 시대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당부겸 거듭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건강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록보국의 사명으로

국회의장 황낙주

친애하는 전국 속기인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 및 각급 지방의회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록보국의 사명감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속기인 여러분의 건강과 더불어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의정사를 회고하건대 1948년 제헌국회이래 6·25전쟁과 부산피난국회, 자유당정권의 전횡과 정치적 갈등,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10월유신과 10·26, 12·12와 5·18, 그리고 마침내 문민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소용돌이 칠 때는 물론 모든 헌정사의 진퇴와 단속의 흐름이 연면히 각인되어 냉엄한 역사의 장에 기록으로 보존되어 왔으니 이는 오로지 음지에서 묵묵히 사관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속기인 여러분의 수고와 땀의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무릇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줄 아는 민족은 슬기롭다 할 수 있으니 우리 또한 삶의 발자취로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사실을 사실화하여 기록으로 엮어가는 일이야말로 민족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을 통하여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생각과 말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교환하여 보다 가치있고 보람되게 개선, 유지, 발전시키고 생활에 활용하여 온 것에 다름아니라 할진대, 이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인간의 생각과 말을 온전히 보전하여 후세에 널리 남길 수 있도록 문자화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 속기인들이 앞장서서 감당하여 왔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전국 속기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보다 내실화하고 토착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고 밖으로는 전 인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각 분야별로 저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발전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생각과 말을 기록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다방면의 지식을 함양하고 속기술을 더욱 연구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록문화 창달에 가일층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전국 속기인들의 총 집결체로서 대한속기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해 왔고 UNESCO 산하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0회 INTERSTENO총회에 우리나라에서도 속기관계인사가 대표로 참석하고 의회속기부에 한국이 정식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화를 향한 시의적절한 활약이라 생각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도 입법부차원에서 의회속기발전을 위한 각종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속기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의록은 영구보존되는 중요한 사초

조영기 섭외부장

정치는 종종 오케스트라에 비유된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숱한 음색들을 한데 모아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어내야되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부드러움과 강함, 높음과 낮음, 날카로움과 섬세함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지난 1월25일 의원회관을 찾은 우리 일행을 따뜻한 손잡음으로 맞아준 홍사덕위원장. 몸에 밴 부드러움과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내놓는 어조에서 간간이 묻어나오는 날카로움 그 둘을 적절한 濃淡으로 풀어내어 독특한 자신만의 음을 빚어내는 홍위원장이 '94 국정감사 후 모언론에서 최고의 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런 홍위원장을 만나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노동환경위 담당 이주성속기사무관·김영중 본지 편집위원 배석)

홍사덕
국회노동환경위원장

- 개인사무실에 속기사를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람 두뇌가 근사한 것이 생각났는데 메모해 놓지 않고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내가 낭인 시절에 번역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달에 한 7·800매 원고를 썼는데 아주 힘이 들어서 무슨 방법이 없나 하다가 예전에 읽은 도스토예프스키 생각이 나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하고 「백치」가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그 인

세를 미리 당겨 노름을 하는 바람에 오전에는 「백치」를 쓰고 오후에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쓰다가 힘이 들어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된 「안나」라는 숏핸더(shorthander)를 채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기일내에 소설 두 권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고 속기사를 못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속기학원의 소개를 받았는데 벌써 햇수로 근 8년째 됩니다.

- 직접적으로 친근하게 속기를 접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원고청탁이 들어와도 겁을 안 내지요.

- 회의진행하실 때 남다르게 우리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상정합니다 정회합니다 산회합니다 대신에 올립니다 멈춥니다 마칩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 만들어 낸 한자어투를 우리가 그대로 쓸 까닭이 없어요. 그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 그러니까 회의록에 대한 생각을 미리 가지시고 용어 선택에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15대 말까지는 그 어휘를 거의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들 몇 사람만 따라와 주면 되는데 김덕규위원장이 좀 열쩍다고 그러면서 중단을 했어요. 그것은 정말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이번에 식용수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바꾼 것도 박윤흔장관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법을 개정할 적에는 몇 개 조문만 손을 대는 것이라서 우리말화 하는 것이 어렵지만 새로 제정할 때

는 우리말로 바꾸어야 돼요. 그것이 또 통일 준비입니다. 북한의 법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말화 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본 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는 17세기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학문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가 왜 칸트인고 하니 라틴어로 쓰여졌던 철학용어들을 독일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칸트입니다. 우리 경우에도 내가 무슨 국수주의자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또 백성들이 알기 쉽거든요.

- 꿈과 사랑이 있는 정치를 표방하셨는데 정치철학이 어떤 것인지요?

정치는 사실 꿈입니다. 그 꿈을 다듬어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비하면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 행복해 하지 않는 것은 우리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왠고하니 의원들 가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들을 뽑는 백성들 가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 얼마나 메마르고 모질고 그렇습니까? 이런 모진 법이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그대로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명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꿈과 사랑이라는 것이…

- 회의록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헌국회 이래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서 얻을 수 있는 사초 외에 가장 명백한 증거는 회의록에 드러난 언행이거든요. 의원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진지해질 것입니다. 즉 홍사덕이를 포함해서 지금 회의록을 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이 많은데 예컨대 영국의회나 미국의회 일본의회 속기록을 보면 그런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고를 읽느냐 하면 전혀 아니예요. 그것은 남겨지는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의원 스스

로 끊임없이 연찬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속기록은 가장 오래 남는 자기기록인데 의원들 중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이승만박사 남겨진 기록을 보세요. 유장하게 흐르면서도 문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 회의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단호한 어조로) 속기록은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어긋난 것은 어긋난 대로 써야 돼요.

- 숫자를 잘못 읽으셨다거나 법 조문을 잘못 읽으셨다거나 하는 그런 명백한 사항은 속기사들이 정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37조3항을 37조2항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3항을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나중에라도 노티스를 주었을 경우고 본인이 정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고칠 수 없는 것이지요.

- 회의록의 중요성을 체감해 보신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11대 초선의원일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은 제가 유신이래 처음으

로 방위비 삭감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전체예산의 한 2%가 예비비이고 예비비 중의 절반 즉, 전체예산의 한 1%를 안기부에서 갖다 쓰는 돈이었어요. 그 지출내역을 지나가는 말로도 밝힌 적이 없었는데 기계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잘못 분류되어서 전부 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하니까 예결위원장이 정회 선포를 하고 속기록 삭제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원들한테 준 요구자료를 밤새도록 안기부 직원들이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 다니면서 다 회수해 가버렸는데 그러나 내 발언내용은 속기록이 발간될 적에는 삭제될 지 몰라도 사초로서는 그대로 영구보존이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근거로 쓰일 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런 기록이라도 남겨놓지 않으면 먼 훗날 남북대결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돈을 조달해 가지고 그 엄청난 자금을 썼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 속기사의 자세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알다시피 직업중에 가장 대접을 받는 것은 전문직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속기를 하는 분들은 옛날 사관 비슷한 것인데 자긍심을 가지고 후세에 영구적으로 남을 사초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기자신한테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최저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얘기인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최저가 '임금을 죽였다'고 써서 죽였어요. 그 때는 사관이 대물림을 할 때라 아들도 또 똑같이 써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부르기 전에 이미 붓을 들고 와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또 똑같은 것을 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기록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치지 않는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가더라도 나는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바로 잡는 것도 변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소리까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 두어야 사람들이 나중에 '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영구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구나'하고 의원들 스스로 노력을 하지요.

- 지난번 어느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하는 사람의 표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해 주어야 그것이 올바르게 기록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옳거니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그전에 내가 指鹿僞馬를 "사슴을 가리켜서 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실언한 적이 있는데 선배 한 분이 "어이, 그거 말인데 자네가 소라고 그랬으니 속기록에 바로 잡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 현행 규정상 정정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 들여서는 안돼요. 영국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속기인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세계화라는 말은 한국 고유의 YS식 표현인데 지구화라는 말이 모든 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세계화는 모든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자기 직종에서의 경쟁상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정도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미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눈을 늘 영국의회, 미국의회, 일본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두고 거기에 견주어서 '우리가 뒤질 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부단히 정진해야지요.

- 속기협회가 인터스테노(세계속기타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그 곳 회장이 국회의장님한테 "국회 속기인들을 많이 참석케 해달라"는 서한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회의 참석에 있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홍사덕이도 동원하고 의원들을 동원하세요.

제41회 인터스테노 세계총회

외국어부

날짜와 장소

제41회 인터스테노 세계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1995년 7월15일부터 21일 사이에 개최됩니다. 총회일정은 토요일 개회식, 일요일 타자와 PC경기, 월요일 화요일은 속기국제경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총회모임 그리고 그 날 밤 파티가 열리며 금요일에 관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다룰 의제

제41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모토는 "문서로 일하기와 그 질"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총회모임이 현대사무실에서 특히 비서들이 수행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신개발에 관하여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IPRS와 같은 비서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전문적 집단의 인터스테노 산하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서작성에 관한 세계챔피언을 겨루는 국제경기가 개최될 것입니다. 특히 신생 동유럽 국가에서 온 비서들을 위한 워크샵을 조직할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며 전 세계에 3억이 넘는 장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무실내에서 생활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총회 개최장소

총회의 본부는 암스테르담시 중앙의 남쪽에 위치한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며 버스와 전차같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와 그들의 동반자는 암스테르담내의 버스와 전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 주일의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총회센터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큰 레스토랑이 있고 입구에 서점 우체국 복사실 응급처치실이 있습니다. 총회접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7월14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일과중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오래되고 잘 보존된 역사적인 중심지로서 유명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주로 정교한 다리와 자가용 보트와 낡은 수문을 지닌 여러 운하를 따라 지어진 17세기 상인들의 집들이 돋보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암스테르담은 반고호박물관과 같은 40여개가 넘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선진 문화수도의 하나입니다. 쇼핑과 외식하기에 걸맞는 도시입니다.

호텔

여러 종류의 호텔이 싼 가격에 총회참석자들을 위해 예약됩니다. 대부분의 호텔이 암스테르담의 중앙과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 영빈관에 머무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텔 선정과 예약은 Free University의 총회사무처에서 열립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KLM공식항공기

KLM왕립 네덜란드항공사가 제41차 인터스테노 총회의 공식항공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KLM사무실에서 여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친교프로그램

매력적인 친교프로그램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참석자들을 위한 운하관광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운하용 자전거를 빌려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암스테르담을 관광하거나 암스테르담 주위의 네덜란드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회참석자들을 위해 계획된 네덜란드의 여러 명승지 버스안내 관광도 있을 예정인데 일반 관광보다도 특별합니다. 전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파티와 환송파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더 관광하시기를 원하는 참석자들을 위한 총회전후 관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전 참석자들을 위한 등록비는 1995년 4월1일전까지는 400길더(US달러 210불)정도입니다. 이 비용에는 총회유인물과 전 총회행사에서 자유참석 운하관광 그리고 전 참석자를 위한 환영회와 총회기간 중에 공공교통수단의 자유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등록하신 분은 총회카드를 받게 되는데 환송파티와 여타 관광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된 가격에 호텔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를 위한 등록비는(파트너 카드)120길더입니다. 이 비용은 개회식과 폐회식의 자유 참석과 운하관광 전 참석자를 위한 환영회 그리고 공공교통수단의 한 주일 자유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카드를 지닌 사람은 환송파티와 여타 관광 할인된 가격의 호텔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참석 비용은 100길더이며 환송파티비용은 50길더이며 마감날짜는 4월1일로 같습니다. 마감날짜 이후에는 25%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전시

이 분야에 여러 대기업들이 총회센터에서 상업적인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언어

불어 독일어 영어의 동시통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통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INTERSTENO와 세계화

김은숙 (외국어부장)

요즈음 "세계화"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들리다 보니까 제목으로 사용하기조차 망설여진다. 그러나 INTERSTENO(국제속기타자연맹)야말로 "세계화"의 광장처럼 느껴지니 하는 수 없다.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제40차 인터스테노총회(1993. 7.10-16)에 참석한 지도 벌써 두 해가 되어 간다. 다녀오자마자 국회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국회보에 약간은 공식적인 보고 비슷한 글을 썼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속기계에 실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친밀하게 우리 속기인끼리의 정담을 나누고 싶다.

워낙 바쁜 일상을 헤쳐가다보면 내가 언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런던경유 이스탄불에 가고 또 파리를 경유하여 서울에 되돌아 왔었는지조차 아련하기만 하다.

이따금 기억의 창고에서 파랗게 남실대는 것은 이스탄불 앞바다인 SEA OF MARAMA이다. 8박9일 머무르는 동안 혼자 간 나그네의 고독과 시름을 달래주는 듯 했던 파아란 바다는 항상 그렇게 너그러이 있으면서 나의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곤 했었다.

행사장으로 떠나는 셔틀의 공식 출발장소가 힐튼호텔이었는데 너무 비싼 관계로 그 곳에 묵지는 못하고 구 시가지의 싸구려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힐튼까지 와서 셔틀을 이용했었고 다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겨 그럴 때면 간단한 차나 경양식을 파는 호텔의 발코니에 앉아 무성한 녹색의 숲과 붉은 꽃들 위에 파랗게 떠있는 듯한 바다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바닷가가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을

까. 바다는 나에게 기대한 만큼의 위안과 위로를 베풀곤 했다.

나의 답답함과 때 아닌 시름은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됐었다.

협회 회장님이신 강우혁의원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총회 참석을 위해 힐튼에 예약을 끝내고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Clinton 대통령의 방한으로 임시회가 열리게 되고 모든 일정이 취소되게 되었고 회장님을 수행할 예정이었던 나 혼자 가게 된 것이다. 인터스테노 본부와 몇 번이고 가겠다고 편지가 오고 갔는데 모두 안 가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가 염려된다는 고려와 함께 어쨌든 나의 출장명령도 이미 결재가 끝났었다.

세계 2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대표들과 만나게 되면서 특히 아시아의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대표들을 만나고 KOREA가 발음될 때는 나 혼자 이스탄불에 온 것만도 다행스러웠었다. 나처럼 "나홀로" 보낸 독한 나라는 짐바브웨가 있었는데 자기가 쓴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다 대준다고 하였다. 카메룬이나 보츠와나에서도 여성 의회속기사들이 둘씩 셋씩 와 있었는데 한국은 왜 혼자인가 ? 내가 고독을 좋아해서? No Way!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설명하기 바빴다. 우리 회장님 부처께서 오시고 나는 수행 예정으로 발탁되었으나 갑자기 Mr. Clinton의 방한때문이라는… 그러면서 이미 낸 총회 참가비와 호텔 예약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고 구츨러 사무총장, 예네르 총회 의장 등등 높은 양반들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스탄불은 터어키에 있었다. 터어키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고 또 뭔가 착오도 있었다. 내가 회장님의 불참 사실을 급히 통보한 지급편지, 수표 보낼 때 보낸 편지 등은 다 있었으나 수표는 없었고 나는 수표의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었다. 수표의 영수증은 사무실 내 책상서랍에 있었다.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야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전화를 해야 했고 호텔에서 사무실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전화를 걸었다. 통화료는 엄청나게 비쌌다. 바가지를 흠씬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거기 있는 영수증을 팩스로 보낸 것을 그곳 여행사(총회대행사)에서 받았는지 여행사에 전화했고 못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서울로 전화를

해야 했다.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전화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니 호텔에서 거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다. 서울서는 영수증을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스탄불 여행사가 애초에 환불해 주기를 달가와 하지를 않더니 이제 안 주려고 발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기 전에 이스탄불 총회 본부에 국제전화까지 했고 내가 도착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확약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리발을 내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다.

나는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돈을 지금 여기서 받아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무슨 면목으로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대할 것인가?

나는 다시 사무실로 전화했고, 팩스를 보냈는지 다시 확인했고 다시 여행사에 알아봤다. 못 받았다고 했다.

나는 여행사로 찾아갔다. 힐튼 호텔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는 커다란 여행사였다. 나는 그 여행사의 부사장을 만나 내 사정을 얘기했다. 그는 내가 그 곳에서 집으로 전화하도록 친절을 베풀었다. 집에 전화하여 사무실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 팩스를 보내도록 요청하니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웠다. 사무실이 퇴근했을 시간인데 어떻게 내 책상 서랍을 열고 그것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팩스 보낸 사무실 직원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지나 않는지…

마음은 지칠대로 지쳐 이스탄불에 온 것이 원망스러워질 지경이 되었다. 힐튼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을 달랬다. 집 떠나온 지 여러 날 되었고 공식행사나 관광일정이 끝나면 혼자 싸구려호텔로 돌아와 고독을 벗 삼아야 되는데다 더불어 이런 불안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니 답답한 마음 그지 없었다. 점심도 굶은 채로 바다를 바라보다가 오후 일정이 되어 셔틀을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에 막 들어서니 그간 여러차례의 실랑이 덕분에 낯이 익은 여행사 직원이 반갑게 나를 맞으며 팩스가 도착되어서 이제 돈을 내줄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나중에 집에 와서 들었는데 영수증이 흐릿해서 팩스로 보내기 힘들어 그 내용을 검은 싸인펜으로 일일이 적었다고 했다.

이스탄불에서의 여러 날을 그런 식으로 부대끼며 뭔가 값을 치르는 사이에 즐겁고 보람된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

도착 첫날 있었던 중앙위원회 임원에게만 베풀어진 환영식장에서 밤늦도록 밤바다를 내려다보며 얘기를 나누었던 스웨덴 대표가 생각난다. 그 때도 힐튼의 왼쪽 발코니에서 였었는데 보스포러스를 잇는 다리의 불빛과 아시아쪽의 이스탄불의 불빛이 검은 바다 건너편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 다음 다음 날 있었던 선상유람의 티켓을 사지 않았다가 나의 권유 때문에 왔노라고 하였다. 배 위에서 만나자 그는 "I was inspired by you."라고 하였다.

이스탄불을 회상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북경대학교수 왕이다. 그는 네 명의 중국대표들의 통역이었는데 영어보다는 러시아어가 자유스럽노라고 했다.

아무래도 다른 여러나라 대표 중에서도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이 가깝게 느껴졌으나 중국사람이 더 친밀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말이 통하는 왕과는 자주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혼자서 해외회의에 참가한 내가 신기한가 보았다. 왜냐 하면 내가 동양여자였으니까. "You are a liberated woman."하였다.

마지막 날 프린스 아일랜드로 가는 유람선에서 환불 받았느냐고 일부러 와서 묻던 체크의 늙수구레한 박사님, 받았노라고 하자 다행이라고 하며 기뻐해 주던 천진한 모습이 생각난다.

중앙위원들만의 저녁모임에서 만난 헝가리 대표인 연세 많은 할머니도 생각난다. 그녀는 법학박사인데 외교관으로서 젊은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는데 그러다보니 아들이 불문학 교수가 되었노라 했다. 그녀는 꿈 속을 더듬 듯 말했다. "I love Paris." 돌아오기 위해 Paris에 와서야 나는 그녀가 말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파리는 정말 아름다웠다.

올해도 인터스테노총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7월15일부터 22일 사이에 열린다. 그들이 그립다.

우루과이에서 왔던 늙은 여성속기사의 다정함, 부통령 부인이라던 젊은 전직속기사의 분방함이 생각난다. 그녀가 남편을 졸라 7명의 우루과이 속기인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다. 속기사 재직시 상원의원인 남편과 결혼했었다고 한다.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세계의 친구들, 내가 인터스테노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다양한 나라의 수준급 사람들과 그렇게도 갑자기 친밀하고 다정하게 사귈 수 있었겠는가.

유럽여행 몇박 몇일 수박 겉할기식 관광이 아닌 진정한 세계인과의 만남을 수준있게 즐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참 여러 벌의 옷과(그들은 하루에도 몇 벌씩 때와 장소에 따라 갈아 입는다) 적절한 구두도 가져 가고. 왕 교수는 파란 반소매 상의를 기간 내내 입고 있었고 머리도 안감고 있었지만… 아마도 밤에 빨아 아침에 입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열정만은 좋았었다. 그는 나더러 꼭 중국에 오라고 했었는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를 배우는 세계 속의 속기.타자인의 잔치, 인터스테노, 나는 그 곳에서 속기를 배운 것이 자랑스러웠었고 그들의 교양과 기품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 경의를 표했었다.

'94 국정감사를 다녀와서

◇일시 : 1995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사무처 속기1과장실
◇사회 : 홍순관 협회이사(국회사무처 속기2과장)
◇참석자 : 채강희(협회이사, 속기2과 편집담당 사무관)
김선옥(협회이사, 속기2과 속기3담당 사무관)
김재학, 전난영, 조신자, 안기철, 김미라 회원
정리 : 조미경(본지 편집위원)

사회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임은 우리가 국정감사 회의록발간을 위한 감사현장에서의 속기업무로부터 번문·편집·발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수행과정을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모였습니다.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든지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기탄없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회의록발간업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로 말미암아 속기업무개선책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먼저 국정감사를 수행한 느낌에 대해 자유스럽게 한마디씩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김재학 국정감사를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일곱번을 수행했는데요 이제는 어느정도 수행업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신자 저는 비교적 일이 많다는 위원회에 연이어 두번씩 국감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금년에는 피감기관직원들이 낯도 익고 해서 비교적 협조가 잘 되

었어요. 그런 점에서 국감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업무량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능률성을 감안한 반 편성과 함께 팀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전난영 사실 국정감사를 처음 나간 88년에는 호기심도 많았고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 여러 날 동안 출장 다니면서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좋았어요. 그 때는 의원님들이나 피감기관직원들이 속기사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외적인 여건 때문에 긍지를 느끼기도 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이 무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적인 성숙을 이루지 않으면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라 저는 똑같은 위원회를 계속해서 3년을 갔어요. 첫해에 갔을 때는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해에는 참 편하다는 느낌, 그리고 세번째 해에는 좀 지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편하겠지 하면서 갔는데 문제는 3년을 계속해서 가더라도 똑같은 분야지만 전에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소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된 자세를 갖고 왔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3년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의원 보좌진이 바뀐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의원 보좌진들의 속기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꼭 질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원 보좌진과의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었습니다.

안기철 저는 현장상황에 맞는 업무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피감기관에서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간식도 잘 안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의가 떨어지지요.(웃음) 일반적인 근무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도 때로는 근무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 다니면서 항상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회 그러면 선배입장에서 옛날의 국정감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채강희 제 경우는 64년도부터 국감수행을 해서 72년도 유신으로 중단될 때까지 참여해 왔는데 시대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농경사회였고 지금은 첨단산업사회라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원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 시대는 업무의 다과를 불문하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바람쐰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특히 지방감사는 2인 1조로 맞교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감사기간이 끝나면 일감이 수북히 쌓이게 마련이지요. 또한 지금은 피감기관으로부터 PC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는 복사해서 번문에 참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복사는 물론이고 타자수도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수필로 전부 번문을 해냈거든요.

그리고 그때하고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부터가 틀리지요. 다른 사람보다 일 더하고 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오히려 불만이었지요. 요즈음은 국감일정이 길고 업무량이 많은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일정이 긴 곳을 선호하던 시대였어요.

김선옥 저는 71년에 입사해서 선배님들 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만 보아오다가 국정감사가 16년만에 부활되어서 88년에 어느 위원회 팀 장으로 배치되었어요. 그때 그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옛날의 국정감사 속기록을 하나의 선례 또는 편람으로 참고하는 것을 보고서 긍지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속기록이라는 것이 70년대 이전에는 사초로서의 보존용에 그쳤으나 요즘은 역사성 외에 신속성 그리고 대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번 국정감사 회의록원고를 검토하다보니까 속기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 국정조사위원회 기록 원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에 필요해서 그때 국회에서 빌려간 것을 이번에 어렵게 돌려받은 일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의원님들이 회의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정보화사회이므로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욱이 신속·정확한 회의록발간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업무량이나 전문용어의 해독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학 과거와 달라진 것은 당연한데, 그 달라진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자료의 수집이나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아도 커다란 줄기만 파악하고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도로 다기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또한 그것이 의원들로서는 막바로 지역구에 반영이 되어서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역시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회의록이라는 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기사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더욱 전문화되어야되고 항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새로운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사실 예전에는 국정감사 회의록은 인쇄를 하지 않고 원고상태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성에 좀 더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신속·정확한 국정감사회의록의 발간·배부에 중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기과로서도 옛날과는 달리 신속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는 위원회회의록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면답변 부분은 부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배부 역시 모든 회의록을 발간 즉시 낱권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의록의 신속발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기철 항상 마음속에 느껴오던 부분인데 지금껏 국정감사라든지 기타 회의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회의양태도 상당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속기업무도 제헌국회 당시의 잉크로 찍어쓰던 펜시대에서 볼펜시대를 거쳐 키보드시대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원고가 인쇄소로 이송되어 가지고 인쇄되어 회의록이라는 최종 산물로 나오기까지의 작업단계는 별로 변화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로상태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 내용들이 의원님들과 국민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차원인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자체평가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즉시 움직여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작업체계를 바꾸는 것이 업무전산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학 제 생각에는 신속발간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즉시 원고상태로 제공하는 차원이 있고 두번째는 완전히 인쇄된 회의록을 되도록이면 빨리 배포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PC가 도입되었으니까 디스켓을 인쇄소로 넘기기 전에 일단 원고를 출력하여 가본으로 넘겨서 예산심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본으로 넘길 때는 「가본판」이라는 조그마한 주석을 달아서 넘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쇄본으로 완벽하게 해서 신속발간하는 문제는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쇄소 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자체 인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부터 연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사고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체발간을 포함한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전산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발간문제 인력활용문제 이런 면에서 일부에서는 속기·편집 업무의 일원화 문제도 얘기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채강희 속기계에서는 속기에서부터 번문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편집계몫으로 관념화 되어 있는 소위 속기·편집업무의 이원화체제는 활판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어느 분이 현실에 맞는 작업체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편제부터 적절히 고쳐서 대응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속발간을 해야 된다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보다는 이를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우선 속기업무와 편집업무를 일원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속기·편집 각 파트의 업무폭주 시기의 차이를 상호보완해 나가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의 업무 폭주기와 비폭주기에 따른 인력배치의 탄력성있는 운영등 조금씩만 보완하면 신속발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속기사는 속기에서 번문까지만이 내 일이라는 관념을 깨고 회의록발간사로서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마음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제가 속기과에 와서 이번에 정기국회를 처음 치르어 보니까 그전보다는 편집계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주원인이 서면답변부분인데 특히 국정감사의 경우 실제 질의·답변내용보다 엄청나게 많은 서면답변이 회의록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다녀온 후에 늦었지만 각 위원회와 협조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의 많은 부분을 디스켓과 함께 제출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 정기국회부터는 사전에 협조하여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김미라 저는 3년을 똑같은 위원회에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짜증이 좀 났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의외로 접해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안이한 자세로 임했던 마음에 아연 긴장도 되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계속 갈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회의 일을 해 보고 싶은데 한 부분만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전체적인 것을 너무 몰라서 나혼자만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사회 전문화라는 부분도 좋지만 본인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김미라 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 외부로 국정감사나 조사업무로 인해 출장을 나가면 정신적으로는 긴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해서 국회내에서만 일하는 것보다 일 자체가 재미있더라구요. 전문성도 살리고 또 다양한 경험도 하고 싶은 욕심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약간 절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기철 똑같은 위원회를 자주 가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내용이 정확해지고 업무협조도 잘 되는 이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회의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면 당분간은 생소하고 좀 고생을 하겠지요.

김선옥 몇 년전에 어느 기관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속기사가 국정감사를 가서 PC지원을 받았는데 저와 한 조가 되어 타이핑 해 주던 수감기관의 여직원이 저를 따라서 회의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회의하는 것을 들어야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게 바로 프로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적극적인 열의때문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된 회의였는데도 번문작업을 거의 95%정도 끝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직원처럼 전문가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학 제가 70년도 국정감사에 관한 좌담회 자료를 보니까 그때 선배님들의 생각도 지금과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그 중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보니까 국정감사 수행 속기사의 전문화 문제가 그 때도 지적이 되었더군요. 25년 전에 제기 되었던 문제가 지금도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은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감사를 보좌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회의록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야 되겠는데 88년 국정감사 부활이래 일곱 번이나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재미나 일의 난이도, 일의 양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C의 도입으로 속기업무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전문화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능적인 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업무의 형평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자기변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속기사로서 확실하게 업무보조를 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난영 지금 PC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신속성은 어느정도 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디스켓을 인쇄소에 보내기 전에 별도의 원고확인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는 반편성에 대한 것인데 팀장은 전문성을 위해서 한 위원회를 계속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팀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정기적인 계편성을 통해서 여러 위원회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제 경우에는 국감반을 편성할 때 미흡하나마 몇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에서 담당하는 2개 위원회는 담당계에서 보내고, 둘째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계에서는 담당하는 2개위원회중에서도 전년도에 가지 않았던 위원회로 보내고, 셋째는 지방감사에서의 숙소 문제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남녀가 모두 짝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요즈음은 남자가 희귀해서 반편성이 참 어렵더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 PC가 1인 1대씩 도입이 되었는데 PC활용에 따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신자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편리하게 기능을 익힌 것

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재학 각자의 노하우에 대한 일종의 전달교육이지요.

사회 그것들을 취합하고 연구해서 여러 직원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군요.

김선옥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지요. 자기나름대로의 노하우에 대한 사례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채강희 앞으로 자체 전산팀으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사회 짧은 시간에 비교적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타 에피소드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안기철 제가 보기에는 수감기관에서 준비한 속기사실을 이용해서 원고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우리가 고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정이 허락하는 한 PC로 번문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다녀온 후 원고완성 과정에서 바이러스 체크조차도 안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또 플로피 디스켓도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고, 수감기관에 가서는 그 쪽 분위기에 맞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신자 제가 갔던 감사팀의 부끄러운 일인데 속기사가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가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께서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감기관에서 그 전에 답변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답변하라고 해서 속기사 없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다가 어느 의원께서 속기사가 없는 것

을 발견하고는 속기사 없는 회의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예가 있습니다. 속기사석이 한 가운데 있지만 눈에 잘 안 띄였던 것 같습니다.

안기철 작년 국감 때 어느 수감기관 화장실에서의 일인데요. 요즈음은 남자 속기사가 드무니까 위원장님도 대강 남자 속기사의 얼굴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 도중에 화장실에서 위원장님을 만났어요. 볼일을 보는 중에 옆으로 물끄러미 저를 보시더니 "여기 회장실이 어디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직원 아니유?" 그러시는데 문득 마음에는 당연히 속기사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섭섭하더군요.

사회 고맙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이기는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가능한 한 모두 수렴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국정감사 업무에 보탬이 되고 또한 국정감사 회의록을 비롯한 각종 회의록을 신속·정확하게 작성 발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빠르게 변화·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속기계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까지의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자세로 연구 노력할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의 광장을 수시로 마련해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바쁜 시간인데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시 의회를 찾아서

서현숙(본지 편집위원)

부산시 의회를 지상중계하라는 특명(?)을 받고 부산으로 달려가는 기차속에서 지난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지인들의 얼굴을 하나둘 떠올려 본다.

부산의 중심인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시청 건물중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 의회사무처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인 1990년 6월 20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51개 선거구에서 ,51명의 의원을 선출 지금 현재는 제2기 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속기업무 현황

부산시의회는 연간 정기회 40일 임시회 80일 회기로 현재 11명(남자 : 3명, 여자 : 8명)의 속기사가 본회의는 1인당 30분씩, 운영 내무 재무 건설 도시주택 교통항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각 2명의 속기사가 배치되어 하루 종일 속기 뿐만 아니라 투개표 출결 체크 등등 회의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속기된 원문은 번문 교정 편집 인쇄작업을 거쳐 각 시·도 부산시내 11개 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국회 등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94년부터는 모든 작업을 PC로 처리, 편집까지 하고 인쇄소에서는 이것을 원판으로 교정없이 인쇄를 함으로써 종전 1억여원의 인쇄비를 3,000만원 수준으로 예간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속기사의 위상

부산시 의회 속기사는 기능직 9등급(10명) 기능직 10등급(1명)으로서 서울 경기지방의 일부 별정직이나 국회 속기직에 비해 승진이나 처우면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속기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가져와 속기사라기보다는 워드요원에 가까운 것이 현 실정이므로 한결같이 직렬의 구분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속기사들의 변화 노력

시험지 원고지 볼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했던 속기업무가 컴퓨터 속기의 등장, PC를 이용한 번문인쇄시스템과의 연결 등의 변화로 각 속기사들에게는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부산시 의회의 경우 94년부터 번문 교정 편집 등 모든 작업을 PC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워드능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정 편집작업까지도 속기사들이 맡고 있어 교정이나 편집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 사실 속기 잘못으로 인한 오류보다는 교정 편집작업중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편집요원의 확보나 속기사들에 대한 편집 교정교육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

협회 역할 강화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교육 예산지원도 시급하지만 이와 더불어 속기사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고 이런 노력이 하나의 개인적인 움직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속기인들의 공동체인 대한속기협회가 나서서 타 시·도 속기사들과의 업무교류라든가 속기실무 교육 등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속기인들의 결속을 다지는데도 한층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협회가 추진해 온 사업의 방향이 주로 이런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런 면에서의 홍보라든가 공신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진정한 전문인이 되기 위한 재도약

지방의회사무처 소속으로 전문직 속기사라기보다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먼저 불려지고 있는 속기인들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하려해도 과다한 업무량과 속기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허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틈틈이 전문용어나 시사용어를 정리하고 있다는 속기사 송연희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산시 의회사무처의 첨병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에서 좀더 나은 지방의회의 앞날을 그려본다.

■

속기사와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이갑준(부산시의회사무처 기록계장)

2년 가까이 속기사들과 업무를 통해서 동고동락한 사람으로서 속기사를 보고 느낀 나름대로의 소감을 간략히 적어 보고자 한다.

처음 의회사무처 기록계장으로 보임되기 전에는 속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연한 신비로움과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느낌은 속기사들이 속기 공부를 하게 된 큰 동기의 하나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강한 호기심과 전문자격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속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서 참으로 어렵게 속기사가 되었으나 그만한 투자로써 일구어 낸 전문자격인으로서의 속기사에 대한 현실적 대우나 인식이 크게 실망스러운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일정한 특수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인으로서의 크나큰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속기사들이 내디딘 첫 발은 대부분 크게 허탈한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우리 시의 경우도 기능직 9·10등급으로 낮은 급료와 그에 반비례하는 고된 일과에 시달리는 속기사들을 지켜보는 외부인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다른 모든 경제법칙처럼 사회적 수요를 무시한 대량의 속기사 배출로 초과공급이 되어 많은 속기사들이 자격증을 얻고도 취업이 안된다 하는 것과 둘째는 조직화의 미비로 단결된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전문자격인으로서의 당당한 사회참여와 역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단체를 조직하여 속기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질적으로 우수하고 수적으로 소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속기사가 필요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 기업체 등등 많은 분야에서 생생한 정보와 자료를 보존관리해야 할 부분은 많으리라 여겨지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이러한 자료 정보의 보존 관리수단은 급속히 개발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보다 우수한 속기능력과 방법의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속기는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를 넓히고 개척해 가야 할 것이며 속기사 개개인도 계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속기의 필요성을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의회에서의 속기사들에 한정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지금의 기능직은 일반직의 속기직렬로 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승진할 수 있어 기록계는 속기계로 바뀌어 계장은 속기직에서 나와야 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야 계장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갖가지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노릭하고 있는 우리 속기사 모두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발전과 앞으로의 영광을 빌어마지 않는다.

나의 속기담

전해성(국회상공자원위 입법심의관)

1. 의회와 속기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의 회의 회의록 작성은 초기에는 속기가 아닌 약기로 주요요점만 기록하던 것을 Isaac pitman이 속기법식을 창안함으로서 회의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발언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고 이 속기가 영국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속기 창안자인 Isaac pitman은 1894년 Victoria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제헌국회 이래 속기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속기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국가는 많지 않다. 또한 지방의회 회의록도 속기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만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속기는 의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 아니겠는가?

2. 나와 속기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6.25사변 이후 전후복구가 한창이던 195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 속기는 그야말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개척분야 중 하나였다.

속기라고 하면 글씨를 빨리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어떤 특정부호를 사용하여 연설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실례로 경찰관의 가두검문에서 속기연습장이 나올라치면 영락없는 난수표로 오해를 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신원을 확인 받아야 되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으니 말이다.

국회(민의원)에서는 속기능력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국회속기사 양성을 위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무처내에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학교에 6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이다. 그 당시 국회속기사는 병역법에서 소집을 면제토록 한 것만 봐도 속기사 확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1958년 나를 비롯한 6기생 6명이 국회속기사로 취업이 되었고 나는 그 후 줄곧 국회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다가 1977년 법제관,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의 신속한 파악, 각종 교육에서의 이점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속기를 활용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와 같이 속기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 주었으니 속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3. 속기의 특성(장점)

사람의 삶은 거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에 의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장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은 전문속기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속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속기의 특성 즉, 장점을 이 기회에 살펴 보려고 한다.

가. 신속성

사람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말과 생각은 순간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과 생각을 오래 간직하는 수단으로 발명된 것이 바로 문자이다. 그러나 문자는 말과 생각을 기록할 뿐이지 남이 말하는 것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 사료로 남길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 속기다.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속기과목을 포함시켜 누구든지 속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속기는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초기에는 속기가 주로 의회의 회의록 작성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계획수립, 강의요록 작성, 원고대서, 전기, 일기, 메모작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생활속기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속기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이 보다 금상첨화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속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우리 속기사들이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와 기자들과의 질의·답변내용을 속기하여 번문하여 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내용이 책으로 발간되어 국내외에 배포되었는데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속기의 신속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현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던가? 이와같이 연설문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일반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은 속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을테니 그야말로 속기는 신비스럽기도 하다.

나. 정확성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것은 국왕, 재판관 그리고 속기사다"라는 격언이 있다. 여기에서 공정하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속기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속기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이승만대통령이 당시 경무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었는데 경향신문이 오보를 함으로써 정간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그 때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문기자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는 동안 윗 사람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한번도 착오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것도 내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의회 회의록을 속기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은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설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확인해 주는 것도 바로 속기의 영역이다.

다. 신뢰성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된다. 바로 전에 생각한 것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이 거듭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속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을 속기해 놓으면 되니까…

나는 1983년에 국회의원들을 수행하여 해외시찰을 한 일이 있었다. 속기를 할 수 없었더라면 시찰보고서는 자료와 메모에 근거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나는 방문국 인사와의 대담내용을 속기하여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결과 시찰 의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앞에서도 속기의 장점이 신속.정확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 신속.정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라는 의미로 이 두가지가 보장되면 신뢰성은 자연히 확보된다.

라. 비밀보장

현대에 있어서 속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밀보장이 아닌가 싶다. 사람은 누구나 공사를 불문하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 물론 사람의 생활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분야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비밀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문자로 작성하는 것보다 속기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 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속기로 기록해 놓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이것은 시간절약도 되지만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유용하다면 속기를 누구나 배우면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나는 "글쎄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 교육과정은 기본문자, 약자, 변자, 속도교육 순으로 이어지는데 기본문자, 약자, 변자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눈물의 고개"라고 말하는 1분에 250자 이상의 속도교육에 들어가면 10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다가 300자 이상을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면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그 과정은 속기를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태평로시절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문기자들의 요청으로 속기강습을 실시해본 일이 있으나 속기 능력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속기는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피눈물나는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는 스피드 시대, 전문화시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에 이런 특성을 모두 갖춘 속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속기인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속기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역사를 기록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속기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에 더욱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CAS 속기에 대하여

안정근

속기와 더불어 벌써 20여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 준 속기와 선배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기계속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1979년 종로2가 한 귀퉁이에서부터였으니 그것도 15년이 넘어간다.
누군가와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한동안 기계속기에 무관심하다 못해 핍박(?)까지 하였으나 근래 얼마 전부터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으니……

CAS속기란?

CAS(Computer Aided Steno machine)속기란 컴퓨터의 자동번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속기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2벌식 컴퓨터 키보드보다 훨씬 빨리 칠 수 있는 속기기계(속기타자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치면 컴퓨터에 내장된 속기프로그램이 한글로 변환(번문)시켜줌을 말한다.
따라서, 이 CAS속기 방식은 사람이 말하는 속도까지도 따라치므로 속기는 물론 일반문서 작성이나 전자출판 방송자막 입력등도 가능하여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말하는 CAT시스템과 같은 종류라 할 수 있으며 CAS는 1990년에 상표 출원하여 1992년에 등록된 우리나라 고유의 용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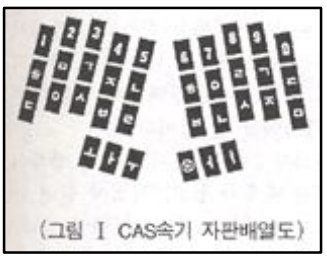
CAS속기의 개발

CAS속기의 개발동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CAT시스템으로 속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한 개인의 15년전에 미국의 속기기계를 들여와 영어자판 대신에 한글을 배열하여 속기하는 『한국형 CAT시스템』을 보급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 속기기계는 미국사람의 체형과 알파벳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우리 한국인의 체형이나 한글의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일부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도록 하는 완전한 새로운 한국형 속기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 UR에 속기가 포함되어 있어 3년여의 연구와 투자끝에 한국형 속기기계인 CAS속기가 탄생되었다.

CAS속기의 자판 배열

그림I에서 보듯이



(그림 I CAS속기 자판배열도)

우측자판과 좌측자판의 모습이, 편한 상태에서 자판 위에 올려진 오른손등과 왼손등 사이의 각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으며, 손가락의 장단도 함께 고려하여 오타율과 피로감이 극소화 되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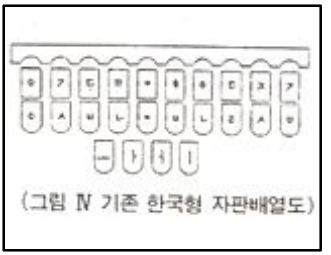
이 CAS속기기계의 우측자판과 좌측자판 사이의 각도는 그림 II에서 보듯 일본의 속기기계나 지난해 9월 개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일반 키보드의 각도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 연구결과가 같게 나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 II 일본 속기기계 자판배열도)

자판의 갯수는 아래 그림III상에서 보듯 영어 위주로 만들어진 22개의 자

판에 한글을 배열한 그림Ⅳ의 한국형 CAT시스템에서는 초성이 7개 밖에

(그림 Ⅲ 영어 속기기계 자판배열도)



(그림 Ⅳ 기존 한국형 자판배열도)

안되는 등 한글을 표현하는데 제약요인이 많았으나 CAS속기는 그림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성 10개, 중성 6개, 종성 10개로 이루어져 한글을 구현하기에 쉽게 되어 있다.

CAS속기의 프로그램

속기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한국형 CAT시스템으로는 편집성이 거의 없으며 오타 및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일반 컴퓨터키보드를 이용해야만 했고, 띄어쓰기도 단순하게 조사 뒤에만 띄어지도록 하였으나 CAS속기 프로그램은 램상주 프로그램이 있어 아래아한글이나 하나워드는 물론 출판용인 오토페이지에서도 속기와 편집(수정, 줄긋기, 글자 확대 및 축소 등)이 가능하며, 편집성과 프로그램의 에러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에서도 조사뒤는 물론 조사 뒤에 또 조사가 나왔을 경우 앞과 뒤의 조사는 붙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또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앞글자에 붙어야 한다면 붙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으며 자동 띄어쓰기는 물론 이제는 자동 줄바꾸기까지 95%이상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CAS속기의 발전방향

지금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등의 모든 속기사들은 PC를 아래아한글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번문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원고지 수필 번문보다 훨씬 더 번문속도가 빠르다는 사실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아한글에서 속기가 가능한 기계로 번문작업을 한다면 어

떻게 될까 ?

속기기계가 짧은 시간에 PC의 일반 키보드로 입력하는 속도를 월등히 능가하게 된다는 점만 인식한다면 해답은 자명해 진다.

먼 장래의 기록방식 및 회의록 작성방식은 완전한 음성인식컴퓨터가 출현하여 모든 기록을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형식이 될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도 어떤 형태든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기록 방식이 최대한 배우기 쉽고, 작업이 훨씬 능률적이며 빠르게 발전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CAS방식도 더욱 더 많은 약자 연구와 인공지능을 겸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CAS속기의 활동

현재 CAS속기를 교육하고 있는 학원은 전국적으로 20여개가 된다. 지난해에는 '94국제 PC쇼를 비롯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한국발명특허 협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제3차 범태평양 인간공학회에 전시되어 많은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는 물론 언론의 호평도 적지 않게 받았다.

특히 중국에서 합작 의뢰가 들어왔고, 올해부터는 법원도 이 속기방식을 채택키로 결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미 채용하여 우리나라 속기도 이제는 사법부에서도 일익을 담당케 되었으니 실로 감개가 무량하다.

CAS속기나 기존 한국형 CAT시스템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의회, 삼성그룹, 김포군의회, 인천 동구의회, 해운항만청, 통일원, 정보사등 100여명이 넘는다.

선배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랑스러운 속기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

안정근/안정근 속기학원장. 서울뉴스 편집위원

속기와 번문

임희용(국회사무처 속기2과)

속기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이미 취업을 하여 속기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속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는 번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언어 속도를 따라 빠짐없이 빠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호화된 속기문자를 누구나 알아보는 일반문자로 옮겨 적는 작업을 일컫는 소위 번문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속기를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번문은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속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업 속기인들에게 있어서 번문은 큰 짐 그 자체이다.

속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체, 국회,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법정에서 속기사는 그 회의체에서 언급되는 모든 내용과 회의상황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속기술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이 때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하는 속기사가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아는 사람은 속기사가 아닌 일반인 중에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속기할 때의 긴장과 수고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짐이 회의장을 나오는 속기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일반인은 그보다 더 적으리라고 본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속기사들이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곧 나오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속기한 것을 번문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번문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1981년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1년간 속기를 배웠고 국회에서 속기실무를 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속기사라면 누구나 느끼는 번문의 짐을 나도 느끼고 있었고 그 짐을 좀더 가볍게 하고자 타자를 배우기도 했다. 그래서 번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번문은 나에게 속기사라는 직업을 매력 없게 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1993년 2월 어느 날 말로만 듣던 기계속기를 직접 보고 소개 받

는 기회가 있었다. 요즘은 CAS(Computer Aided Steno-machine)속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CAT(Computer Aided Transcription) System 즉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번문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일반 키보드보다 빨리 칠 수 있는 속기기계(속기타자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침으로써 컴퓨터의 자동번문프로그램이 한글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을 본 순간 번문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고 속히 배워 속기를 한 후 번문할 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속기기계(속기타자기)의 키보드는 일반 컴퓨터 키보드와는 치는 방법이 다르다. 일반키보드는 한번에 한 개의 키보드를 쳐야 하므로 한 글자를 치는데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키보드를 2-5회 쳐야 되지만 CAS속기방식은 한번에 여러 개의 키보드를 동시에 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한 글자를 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은 약자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므로 한번에 한 단어 한 문장까지도 타이핑이 가능하므로 수필속기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1993년 2월부터 속기타자를 익히기 시작하여 열심히 한 결과 8월경에 이르러는 분당 230자 정도를 속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임시국회시 모든 번문은 속기타자기를 이용하여 번문해 보았다. 그리하여 CAS속기의 장점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수필속기는 회의장에서 속기문자를 이용하여 속기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번문을 해야만 회의록 원고가 만들어지나 CAS속기는 회의장에서 속기 즉 속기타자기의 키보드를 침과 동시에 컴퓨터의 자동번문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번문되어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므로 수필속기와 같이 번문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속기에서 큰 짐이 되는 번문의 애로사항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번문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둘째, 속기타자기의 키보드를 잘못치거나 발언자의 말을 빠뜨렸을 때 발생하는 오자·탈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CAS속기 자동번문 프로그램은 1991년초에 개발되었으나 이때 개발된 것은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버그현상(번문불능으로 인한 문자파열 현상)이 생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2년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94년 1월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구형 프로그램에서의 띄어쓰기 문제점은 명사가 나열될 때와 조사가 나열될 때의 두가지 경우이다.

신형 프로그램에서 조사와 관련된 띄어쓰기는 거의 완벽하게 개선되었으나 명사가 나열될 때 띄어쓰기가 안되는 문제점은 아직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형 프로그램에서 자주 일어났던 버그현상은 신형 프로그램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속기타자기의 키보드를 잘못 쳐서 오자·탈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수필속기와 같이 문장의 문맥을 통해 오자·탈자의 수정·보완이 가능하게 되었다.

회의시간의 약 6-7배(워드번문시)에 해당하는 번문시간을 필요로 하는 수필속기의 문제점을 CAS속기가 자동번문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자동번문프로그램 중 띄어쓰기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CAS속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띄어쓰기 및 오자·탈자를 수정·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있다.

속기를 직업으로 하면서 번문이라는 큰 짐을 덜어보려고 선배동료직원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을 느끼면서 외롭게 CAS속기를 열심히 배우고 활용했었는데 최근 국회에서도 수필속기에 P.C를 도입하여 번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CAS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의록 원고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CAS속기가 수필속기보다 빠르기는 하나 속기와 번문이라는 전체적 일관적 과정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수필속기를 꼭 CAS속기로 대체해야될 만큼 월등히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지금 현재 CAS속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일부 지방의회와 법원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CAS속기를 사용하는 날이 오려면 CAS 속기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좀더 신속한 회의록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CAS 속기가 출현한 것을 우리 수필속기인들이 좌시하거나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수필속기의 장점과 우수성을 발전시켜 CAS속기 못지 않게 수필속기를 통해서도 좀더 빠르고 정확한 회의록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겠다.

여성의 역량을 적극 발휘해야

김선옥 국회속기사무관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사무관」이라는 대어를 낚은 국회 속기2과의 김선옥사무관. 작년 7월 승진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아 속기사무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6개월여, 속기실무 시절에도 투철한 프로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김사무관이 여성관리자로서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커다란 기대를 가져보면서 하루가 스물다섯 시간이라도 모자랄 정도라는 김선옥사무관을 만나 보았다.

- 속기사무관이 되신 소감은 ?

"71년에 국회사무처에 입사하여 공직생활을 한 지 20여년만에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70년대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각서를 쓰던 시절에 비하면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기혼여성도 다닐 수 있게 되기까지 힘겨운 투쟁을 같이 하던 동료나 후배 여직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 국회사무처내 최초 여자 사무관이 되셨는데 혹시 일하는데 고충은 없으신지?

"최초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대접을 많이 받고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윗분들의 배려로 특히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겪는 고충은 아직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내에 육아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여성휴게실까지 마련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처내의 여직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 비하여 여성의 승진의 기회는 아직도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여성관리자가 속속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속기실무자로 일할 때와 관리자로서 속기사무관이 되신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무자였을 때는 자기 일만 빨리 끝내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지금은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화나 심지어는 건강상태 표정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모든 면에서 한 시도 자유로울 틈이 없습니다."

- 협회이사이신데 협회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의 질문과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속기인구의 70% 이상이 여성이면서 지금껏 협회를 이끌어 온 것은 남성에 의해서 였습니다. 12명의 이사중 여성은 단 한 사람, 이 또한 최초인데 이제는 우리 여성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일처럼 협회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회뿐만 아니라 속기계 전체가 발전은 커녕 침체화가 가속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속기계의 앞날은 여성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여성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후배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서는 제한된 관리직의 숫자로 인하여 타 부서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도 적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무척 희박합니다. 평소 내가 몸담고 있는 속기과라는 곳에 좀더 애정을 가지고 사초의 기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믿고 매사에 성실히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조직을 위하여 보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박광택
(전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

속기계를 통하여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님께 뒤늦게 나마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두손모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자 중에는 저보다 훌륭한 선배님이 계신데도, 속기계 편집자의 엄명(?)에 따라 글 재주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히 펜을 들었으니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본인의 생년월일은 1938.1.31인데 당시 고향(경기도 여주군 가남면)면 서기의 실수로 1937년생으로 오기되어 억울하게도 공직생활에서 1년을 손해보고 더불어 명예퇴직도 1년 앞당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두에 먼저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입문과 공직생활에서의 에피소드

1960년대 말경 구 민주당 장면 정권당시의 우리나라 의회제도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였지요.

당시 민의원 사무처시행 속기직(綠事)공채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고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민의원 사무처 속기과장님은 작고하셨고 참의원속기과장님은 김진기 전 이사관님이 저의 직속 상관은 정원도 전 이사관님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뜻하지 않은 5.16의 발생으로 귀중하게 얻은 직장은 국회해산과 더불어 공중 분해 되었고, 저는 얼마 후 건설부 국토계획국에서

근무하다 63년 하반기에 민정이양이라는 슬로건아래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속기직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응시, 다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행정서기로 임명되었고 시험과목도 속기외에 행정직과 똑같은 과목이었음.)

그 후 명예퇴직전 수년간 편집계에서 회의록 편집업무를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속기계에서 봉직해 왔으므로 젊음을 속기로 불살랐다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상황에 의해 같은 국회라는 직장에 두 번씩이나 시험을 쳐서 근무하게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후배들은 잘 모르셨을겁니다.

누구나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요. 저 역시 꼬박꼬박 아껴가며 정성 들여 모았던 봉급에서 거금(?)의 목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사연이 있습니다.

1960년 영계(?)직원으로 처음 발령받아 봉급을 받고 보니 당시에는 국회의 위세가 당당하던 시대라 초봉이지만 행정부의 주사에 해당하는 록사의 봉급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신입사원이고 보니 선배 누님(?)께서 계주가 되셔가지고 한 계좌 가입하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소위 나쁜번호는 의례 영계 사원의 몫이었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1년도 안되어 5.16이 터지는 바람에 국회는 해산되고 졸지에 직원들은 뿔뿔히 헤어지고 보니 고대했던 거금은 만져 보지도 못하고 바람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심정은 표현할 길이 없었지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번은 구 민주당시절 국정감사 때 저는 모위원회 영남반(경.남북)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요란한 경찰 싸이카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텔에 도착하니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우리 아버님벌의 신사가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는데, 대뜸 조상님께나 올리는 큰 절을 하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내놓더니 앞으로 잘 모실터이니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당황도 했지만 그 기분이 썩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 위세가 당당했던 시절이기 때문일까요?

또 그 시절 국정감사반원의 여흥이나 식사는 의원님과 동석하게 되어서, 덕분에 저도 난생처음 식사 때에는 양귀비 같은 미인 기생의 권주를 받기도 했고 또 어느 수감기관에서는 귀로에 머리통만한 전복 한 소쿠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순진했던 시절이라 하숙집 아줌마에게 진상하고 고

작 전복죽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 지금 와서 추억을 더듬으니 왜 그리 바보짓을 했는지 쓴 웃음이 나는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건설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는 건설부에 저의 후임자를 추천해주고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도리였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재직중에 어김없이 세월은 흘러흘러 나이가 들고 보니 상임위원회에 좀 알고 지내던 의원님이 있는 경우 회의장에 들어가기가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실무 후반기에서는 비상수단으로 꾀를 내어 안면있는 의원님이 계신 상임위회의장에는 당시에 훌륭했던 짝궁 부무님을 혼자만 기록을 하게 해서 고생을 시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30년의 속기 인생을 거치는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당시의 부무 짝궁님들은 모두가 우수한 능력자였는데도 그분들께는 많은 고생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의 정신집중과 기민한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속기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도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인 속기 실무자는 제도적으로 편집계로 보직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위성이 항상 제기되었으나 그것이 당시 사무처의 경직된 제도 때문에 그렇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윗분들의 성원과 우리들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래도 지금은 편집계 보직의 길이 넓어졌다는 것을 후배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기까지의 심리적 갈등

이렇게도 추억이 깃든 직장을 하루하루 근무하다 보니 드디어 정년을 1년 앞둔 1994년이 다가왔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더니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정년퇴직이냐, 명예퇴직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저에게도 바싹 다가온 것입니다.

과연 정년을 채우고 덤으로 몇년 더 연장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보느냐?

실로 1994년 초부터 수 개월 동안은 번뇌와 갈등, 아쉬움과 미련이 끊이지 않고 교차되는 시기였지요.

물론 이 경우 각자의 견해와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마는, 저의 경우는 이미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 아무리 발버등친들

몇년내에는 기어코 그만두어야 할 운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 몇년이야말로 더 없이 소중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가슴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유종의 미라는 말의 의미를 되살려 그야말로 명예롭게 승진하면서 동시에 물러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단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명예퇴직의 길을 결심하게 되어 1994.6.30자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문제는 잘못 전개하면 외람된 얘기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몇가지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것이니만큼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미 교분이 있던 사람은 설사 미운털이 약간 배긴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귀중하고 감사한 존재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다시 인연을 맺게 될지 모르는 것이며, 새로운 사람을 깊이 알게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찌 기왕에 알았던 선·후배님들과 동료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후배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다소 관계가 소원했던 사이일지라도 넓게 그리고 크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양보와 참음의 미덕을 보인다면, 그것이 헌명한 처사였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보니 후회 스러웠던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좀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더욱 보람된 삶을 살고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넘치고 보니 우리 후배들께도 몇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첫째 '오늘은 오직 한 번 뿐이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격언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루 일과중 아침과 저녁마다 위 문구를 조용히 되새겨 보고나서 현 시점에서 과연 나는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인가를 체크해 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자체로 벌써 성공의 길속을 걷는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적절한 목표설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끈기가 필요한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개는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그 실천을 초지일관 관철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임을 현명하게 인식하고 명심해서 여러분 모두 성공의 월계관을 써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수일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100대 회사내의 상무를 지낸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과거의 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체면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가족 몰래 요리사 자격증을 따 현재 강화에서 유명한 음식점 사장으로 여생을 보람있게 지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일도 우리모두 본보기로 삼을만 하지 않습니까?

다음 퇴직후의 소감은 여러가지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 행정기관보다 국회의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훈장을 총무과 일반직원이 그냥 전달한다는 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할수는 없겠지만 너무 싱겁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 소감과 함께 건의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기협회에 관한 것인데, 하루 속히 우리 속기협회가 많은 발전을 해서 든든한 재정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의욕적인 사업계획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간에 상호 깊은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도 있을 것이며, 평소 열성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당사자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 협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표시는 있어야 협회회원으로서 끈끈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협조의 미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라 우선 문제제기를 해 놓는 것으로 그치겠으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즈음 나는, 평소 부족했던 자신의 내실을 조금이나마 다져보고 새로운 세계를 인식해 보고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나름대로 새로운 보람을 조금은 느끼고 있으며 퇴직시 계획했던 사업(?)은 경기 동향을 보아가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예의 경기전망을 주시하면서 틈틈히 운동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지면을 통해서 우리 속기계 가족들과 정신없이 넋두리를 하다보니 중언부언하여 결례된 점 많았습니다만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 회상문중에서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새겨둘 점이 있었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기계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좁은 길

신미옥(노원구 의회)

가난한 서러움
발길에 채이는 남루한 시대
이름 높은 이의 정원에선 영혼이 죽고
얼어붙은 귀퉁배기에서 쓰러지는 육체
말없는 기다림은 어리석고
등에 진 십자가만
외롭게 빛나는 이 길 잃은 바다에서

외출처럼 좁은 길
때로는 뿌우연 안개에 휩싸이고
때로는 지진 같은 흔들림이 고개 들어도
길은 오직 하나이니라
너른 광장 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주십시오.

받은 것도, 준 것도
모두가 모자라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새벽 아름다운 사랑 한 소절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어 목메인 이들
외줄 따라 걸을 때
앞선 이의 지표가 빛나는 십자가이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국회회의록 관계법령

국민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의원들은 사법·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가예산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을 만드는 등 막중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의원들의 이러한 의정활동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국회회의록이라는 형태로 어느 하나 흘림없이 샅샅이 기록보존되어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뚜렷이 증언해 주고 있다.

국회회의록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법령들을 각급 지방의회등 관계기관에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게재한다. (국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 내규는 추후 개정될 예정인 바 이번에는 제외함)

(편집자 주)

1.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회법

제62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9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

을 기재한다.

1. 개의 ·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 · 정부위원 또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

제75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4조 (발언원칙)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5조 (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 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3.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1985년 3월 22일 국회규정 제190호 全改
개정 1986. 9.10 국회규정제224조
1988. 9.12 국회규정제264조
1991. 6.13 국회규정제324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회법에 의한 국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 발간 · 배부 · 보존 · 열람 ·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9조제3항 또는 법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 날인하여 국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 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 ·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하 같다)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본회의록) ①본회의록은 법제115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본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 회의록은 법제69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가 법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록 발간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임시회의록) ①본회의(위원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②임시회의록에는 법제118조제1항단서(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위원회의 임시회의록을 발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존회의록) ①보존회의록은 법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②의장은 법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회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7조 (비공개회의록) ①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제118조제4항(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국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제8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9조 (참고문서 · 기타) ①의원이 법제116조(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법제69조제1항제11호 및 법제115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제10조 (자구의 수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로부터 법제117조(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회의록의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명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제11조 (회의록원고의 열람 · 복사) ①회의록 발간전의 회의록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법제62조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법제118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

된 회의록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회의록의 보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은 작성·발간부서에서 영구보존한다.

제13조 (녹음) ①회의록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본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법률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국회 이전의 위원회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부칙

①(시행목) 이 규정은 1985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지침)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회의록발췌복제허가에관한지침과 임시회의록발간에관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86.9.10)

이 규정은 198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9.12)

이 규정은 198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1.6.13)

이 규정은 199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정감사회의록작성」

국정감사(1)

피감사기관 : □□부

일시 xxxx년xx월xx일( )
장소 □□부회의실
(xx시xx분 감사개시)●
○위원장 OOO 지금부터 헌법 제61조·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소관에 대한 xxxx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략】·····

그러면 지금부터 □□부장관과 관계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관계법조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OOO 국정감사와 관련되는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략】·····

○위원장 OOO 다음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관 OOO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소관사무에 대한 xxxx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XXXX년XX월XX일●
□□부장관 OOO●
□□청장 OOO●
□□청장 OOO●
○위원장 OOO 다음은 □□부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장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주요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관

·····【생략】·····

●●●(간부소개)
●●●(관계기관장 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획관리실장 ○○○ □□부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보고)
【생략】
(보고중단)●

·····

○OOO위원 【생략】
○□□부장관 OOO 【생략】
○□□부기획관리실장 OOO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계속)
【생략】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OOO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X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xx시xx분 감사중지)●
(xx시xx분 감사계속)●

○위원장 OOO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OOO위원 【생략】
●●●(OOO위원장, OOO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OOO 이상으로 □□부소관 XXXX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xx시xx분 감사종료)●

국정감사(II)

피감사기관 : □□□□공단

일시 xxxx년xx월xx일( )
장소 □□부회의실

(xx시xx분 감사개시)●
○반장 OOO 지금부터 헌법 제61조·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및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XXXX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략】·····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입법심의관으로 하여금 관계법조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심의관 OOO 국정감사와 관련되는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략】·····

○반장 OOO 다음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OOO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국회법 제

127조·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략】·····

xxxx년xx월xx일●
□□□□공단
이사장 OOO●
총무이사 OOO●
○○부장 OOO●
○반장 OOO 다음은 □□□□공단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임원소개를 해 주시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OOO

·····【중략】·····

●●●(임원소개)
이어서 당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생략】
(보고중단)●
·····
○OOO위원 【생략】
○□□□□공단이사장 OOO
【생략】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계속)
【생략】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OOO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OO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위원 【생략】
●●●(OOO반장, OOO위원과 사회교대)
○반장대리OOO 다음은 OOO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위원 【생략】
●●●(OOO위원, OOO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OOO 그러면 약 XX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xx시xx분 감사중지)●
(xx시xx분 감사계속)●
○반장 OOO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공단이사장 OOO 【생략】
○반장 OOO 이상으로 □□□□공단 소관 XXXX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xx시xx분 감사종료)●

국정감사회의록표기

①사회의 표기
-전체반 감사의 경우는 「위원장OOO」·「위원장대리OOO」으로 표기한다.
-분반감사의 경우는 「반장OOO」.「반장대리OOO」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사회자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반장OOO」으로 표기한다.

②국정감사관계법조문 낭독 표기
-전문위원(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이 관계 법조문을 낭독할 때에는 전문을 기록한다.

③선서의 표기
-피감사기관장·증인·감정인·참고인등의 선서는 증언한 대로 전문을 기록한다.
-선서서를 낭독한 피감사기관장·증인·감정인·참고인만을 고딕으로 표기

하고, 그 이외의 선서자·부서장은 선서문 후미에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줄을 바꾸어 낭독자를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직명과 성명을 차례대로 기재한다.

(예)
○□□부장관 OOO 선서, 【중략】
xxxx년xx월xx일 ●
□□부
장관 OOO●
차관 OOO●
기획관리실장 OOO●
□□국장 OOO●
□□국장 OOO●

④사회교대의 표기

(예 1) 전체반감사시 위원장의 사회 또는 간사와 사회교대할 때
○위원장 OOO ……
●●●(OOO위원장, OOO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OOO ……
●●●(OOO간사, OOO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OOO ……

(예 2) 분반 감사시 반장의 사회 또는 소속위원과 사회교대할 때
○반장 OOO ……
●●●(OOO반장, OOO위원장과 사회교대)
○반장대리 OOO ……
●●●(OOO위원, OOO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OOO ……

⑤증인·참고인의 표기

(예)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때
○증인 OOO
○참고인 OOO

⑥각종 시간의 표기

(예 1)
(xx시xx분 감사개시)●
(xx시xx분 감사중지)●
(xx시xx분 감사계속)●
(xx시xx분 감사종료)●

(예 2)
(xx시xx분 비공개감사개시)●
(xx시xx분 비공개감사중지)●
(xx시xx분 비공개감사계속)●
(xx시xx분 비공개감사종료)●

(예 3) 영시를 넘겨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감사의 경우
(xx월xx일 24시 경과)●
(xx월xx일 xx시xx분 감사완료)●

(예 4) 감사중지 후 감사가 속개되지 않았을 때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⑦유인물등의 게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요령에 의한다.

⑧회의록에 게재할 서면질의답변서·참고문서등은 위원회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령토록 한다.(감사장에서 위원 또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말것이며,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위원회직원에게 전달토록 한다.)

⑨회의록말미 기재사항표기

(예 1) 출석감사위원의 표기
○출석감사위원
위원장(반장), 민주자유당(가나다순), 민주당(가나다순),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가나다순)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2) 출석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표기
○출석전문위원및입법심의관
전문위원 OOO
전문위원 OOO
입법심의관 OOO

(예 3) 피감사기관참석자 표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장관 OOO
차관 OOO
기획관리실장 OOO
□□국장 OOO

⑩국정감·조사회의록은 감·조사의 개시와 종료별로 작성 발간 배부한다.

⑪각종 시간 등의 표기
1) 각종 회의의 시작과 종료
2) 정회와 속개
3) 기타

⑫기관명 또는 직위의 표기
* 기관명은 정식명칭으로 기록한다.

회원동정(1993. 8. 21~1995. 2. 10)

♣승진 (국회사무처 회원)

최석모 : 행정위 입법심의관(이사관)(94. 6. 27)
박광택 : 속기사무관(94. 6. 30)
김기영 : 법제예산실 예산정책심의관(부이사관)(94. 8. 1)
송기철 : 운영위 입법심의관(부이사관)(94. 8. 1)
성천영 : 속기1과장(서기관)(94. 8. 1)
홍순관 : 속기2과장(서기관)(94. 8. 1)
조우석 : 속기1과 편집담당(서기관)(94. 8. 1)
김인영 : 국회사무처(부이사관)(94. 9. 1)
김선옥 : 속기2과(속기사무관)(94. 9. 17)
이주성 : 속기1과(속기사무관)(94. 9.17)

♣전보(국회사무처 회원)

신세화 : 의사국 부국장→국제경쟁력강화특위 입법심의관(94. 8. 1.)
서병운 : 국회사무처→예산결산특위 입법심의관(94. 8. 1)
황인하 :속기1과장→자료편찬과장(94. 8. 1)
최황수 : 속기2과장→농림수산위 입법조사관(94. 8. 1)
강종원 : 여성특위→국회사무처(95. 1. 6)(국방대학원 입교)
박대성 : 산업경제과→헌정자료담당관실(94. 8. 1)
김상기 : 감사관실→건설위(94. 8. 1)
채강희 : 속기1과(속기1담당)→속기2과(편집담당)(94. 8. 1)
김기영 : 법제예산실→국회사무처(95. 1. 6)(국방대학원 입교)

♣퇴직(국회사무처 회원)

김수민(속기1과) : 퇴직(94. 1. 3)(사망)

박광택(속기2과) : 명예퇴직(94. 6. 30)

고융번(속기1과) : 퇴직(94. 11. 5)

김인영(의정연수원 파견근무) : 명예퇴직(94.12.31)

조우석(속기1과) : 명예퇴직(94. 12. 31)

서평길(속기1과) : 정년퇴직(94. 12. 31)

이도실(속기2과) : 퇴직(94. 1. 15)(결혼)

♣임명

윤희억(의회식) : 영남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임강사(94. 3. 1)

이미선(의회식)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과(94. 3. 14)

김재희(의회식) : 서울시관악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계(94. 6. 1)

♣기타소식

국회속기사양성소 업무이관 : 속기1과→의정연수원 연수과(95. 1. 1)

회무보고

1. 정기총회 개최

일시 : 1994. 2. 19(토) 14:0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부의안건
- 1993년도결산승인의건(원안통과)
- 1994년도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건(원안통과)
- 정관개정의건(원안통과)
- 기타사항

참석회원 재적회원수 : 235명
본인참석회원수 : 150인
위임참석회원수 : 13인
총 참석 회원수 : 163인

2. 이사회 운영

제158차 제159차 2회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사항과 회규 및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95사업계획, 제 27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3. 자체감사 실시 : 1994. 01. 21

4. 법인정기보고 및 정관개정안 승인요청: 문화체육부 (1994. 3. 10)

5. 섭외 홍보활동

속기계 32호는 제 27회 정기총회에 맞추어 발간.

6. 기계속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관련회원 및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2회)

7. 전국속기인 체육대회, 속기실무워크샵 및 속기경기대회 등 속기인 수련사업은 계속 준비중임.